
Digital media의 순응형 인물창조 연구

강홍규*

A study on the digital media adaptation figures Creation

Kang, Hong Gue*

요약 서사예술이 주로 인간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허구를 서술한 것이라고 볼 때 인물은 서사의 핵심 구조이며 작중세계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 서사구조의 이야기를 성립시키면서 구성을 이끄는 행위의 주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물의 제시는 작가의 작품에 대한 기본적 태도이며 드라마 자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드라마의 미학적 구조는 결국 작중인물을 통하여 인식된다. 드라마를 미학적 쾌락과 미학적 이해의 정규 혼합물이라고 볼 때 작중인물을 통해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은 서사구조에 대한 본질을 연구하는 지름길이 된다.

주제어 : 서사예술, 인물창조, 순응형, 디지털 미디어, 드라마

Abstract Narrative art is primarily narrative fiction realistic possibility for human figures into the contents of the work to build the core structure of the narrative, and the most important factor.

Constitute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story, while leading configuration is the subject of the act. Portrait of the artist's work presented in this perspective is the default attitude that gives the order to the drama itself, because it is the drama of aesthetic structure will eventually work through the people in the know.

Mixture of aesthetic pleasure and aesthetic understanding of the regular drama is when you think that consciousness is through characters in his works is a shortcut to identify the writers think about the narrative structure.

Key Words : Narrative art, human figures, digital media, drama, characters

1. 서론

작가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형성화시켰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서사구조의 가치를 규명하는 필수적 과정이다. 왜냐하면 시대적 현실상황과 작품사이에는 일정한 대응관계가 있는데 이 양자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작가의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적 인식행위는 작품의 외면적 현실을 통해 삶의 내재적 본질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문학작품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실을 문학자체의 예술적 방법으로 형상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서사작품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어떠한 예술적 방법으로 현실성을 획득하고 또 형상화시켰

는가를 규명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작가가 처한 시대 상황과 현실의 본질을 살펴보고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캐릭터를 규명하는 것이 디지털 미디어의 인물창조의 필수적 작업이다.

작가의 안목으로 파악된 현실은 그 시대가 작가에게 부과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려는 방법 역시 결국 그의 감수성이나 기질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가 활동하고 있는 서사작품 전통의 특성이나 또는 이 전통을 수정하고자 하는 우선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견해[17]는 작가의식과 현실과의 등가적(等價的)인 의미관계를 제시해 준다. 이로써 작품의 일반화된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 우선 작가가 속한 사회집단의 총체적 의식과 작품사이의 대응관계 범주 안에서 작

*충부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논문접수: 2012년 10월 23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11월 15일

가의식이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작가가 바라본 사회 현실이 디지털 미디어 속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밝혀 당대에 갖는 의미와 작가의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작중 인물들은 각각 자신이 처한 작품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그들이 환경에 대응하는 양상은 사건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특징적인 사건들은 작가의 총체적인 작가의식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서사예술은 인간의 탐구이며, 인물의 재창조라고 말하는 것도 작품에서 인물의 기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사예술은 사건보다 인물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근대 이후 디지털 미디어는 성격의 창조, 심리의 묘사 등 인간의 내면성을 강조하게 됨으로 인물은 서사구조의 중심 요소가 되었다. 인물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람, 즉 행위를 하는 주체로서 사건의 담당자이며 또한 그 사람의 성격을 뜻한다. 작품에서 인물은 단순한 등장인물이 아니라, 고유한 개성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인물의 사고와 행동,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을 통해 주체가 실현되며, 인물의 창조가 잘 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서사예술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서사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도 인물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허구의 구조이지만 서사예술의 주체들이 실제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담아내고 있으므로 디지털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극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의식의 형성은 성장기의 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사회 환경 속에서 생각하고 성장한다. 한 개인이 처한 시대적 상황이나 현실은 개인의 성격 형성을 주도한다.

의식의 형성을 자기신체나 자기존재에 대한 인식과 일련의 기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것 역시 의식의 기저로 현실과 시대적 상황을 주목하였다. 한 작가의 의식을 규명하기 위해서 생애와 시대적 상황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당위성 때문이다. 또 이 과정은 작가적 시각이 의식의 범주에서 파생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획득한다.

서사예술이 한 개인적 삶의 총체성을 드러낸다는 루카치[16]의 견해나 작가의 체험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인생의 표현이 작품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서도 생애나 체

험 등의 문학적 배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작가가 작품 속에서 구현시키고 부조(浮彫)해보이려는 인생의 의미는 그 작가자신의 인간내용을 전제로 한 분신입에 틀림이 없다는 일반적인 논리는 바로 작품이 성장기의 체험이나 시대적 환경에 의해서 침전된 의식의 소산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작가의 전기를 살피는 일은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다. 어떤 작가이든 그가 성장하고 습득 환경과 무관한 자리에 놓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작가라는 개인은 역사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12]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는 작가의 삶과 체험이 반영된다. 이것은 단순한 반영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문학적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때, 일반적인 진실을 분명히 갖고 있다. 다만, “작가의 체험이 문학에 수용되어서 작품화 될 때는 그것이 굴절되기 때문에 수용의 정도나 반영의 각도가 실제의 삶과는 다양한 편차를 드러낸다는 것을 명심하는 일”[13]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작가의 삶과 그의 작품과의 연관성을 밝히는 일은 필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서사예술이 주로 인간에 대하여 사실적이고 가능성 있는 허구를 서술한 것이라고 볼 때 인물은 서사의 핵심 구조이며 작중세계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또 서사구조의 이야기를 성립시키면서 구성을 이끄는 행위의 주체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물의 체시는 작가의 작품에 대한 기본적 태도이며 드라마 자체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드라마의 미학적 구조는 결국 작중인물을 통하여 인식된다. 드라마를 미학적 쾌락과 미학적 이해의 정규 혼합물이라고 볼 때 작중인물을 통해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서사구조에 대한 현대적 가치를 규명하는 지름길이 된다.

2. 본 론

서사예술의 지향점인 인간형의 창조나 성격부여 역시 작중인물을 통해 구현된다. 작가의 작위적 구조(artificial construction)인 작중인물은 미적 형상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수행한다. 서사예술이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 작업이라고 한다면, 이 작중인물은 서사구조를 이끌며 서사구성의 핵심이다. 또 드라마가 성격과 주제와 구성의 삼위일체적인 상관속이라고 볼

때 인물의 행동은 서사 미학 구축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작중인물의 행동을 통하여 예술적 진이 이전의 작가의식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서사예술의 캐릭터는 행위나 사건을 수행하는 주체이며, 포스터의 분류처럼, 평면적일수도, 입체적일 수도 있다. 평면적 인물은 이야기 전개과정에서 그 성격이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15] 입체적 인물은 그 성격이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드라마의 경우, 이 두 인물 유형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서사예술에서 순응형 인물에 속하는 작중 인물은 대부분 순박하고 순종적 설정되어 있다. 남편의 폭력에도 대들지도 않고 참아내며 외부의 말을 잘 따른다. 기유정 소설의 작중인물인 춘호 아내는 이 집 저 집 다니며 빌어먹으며 혹은 몸을 팔아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헌신적이다.

이들은 어느 작품에서나 순박한 성격으로 순종적인 동양의 전통적인 여인상을 표출해내고 있다. 이 유형의 여성들은 궁핍한 생활 속에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폭력을 통해 해소하려는 남편과, 술장사나 매춘을 강요하는 남편, 아내를 팔기까지 하는 남편을 위해 한 걸같이 헌신적이다. 특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아내의 매춘을 조장하는 비정한 남편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내들은 이런 남편과의 의좋은 생활과 가족을 위해 말없이 이에 순종하며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아내들의 매춘은 어디까지나 생존의 수단일 뿐이지 쾌락(快樂)이나 애욕(愛慾)의 수단으로 남편을 배반하고 변절한 여성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소낙비>의 춘호 아내는 바로 이 유형을 대표하고 있다. 춘호 아내는 농토를 얻지 못해 놓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연약한 몸으로 험한 산중으로 나물을 캐러 가고, 온종일 샅방아를 짚어 얻은 대가로 남편을 공경하는 착하고 순박한 여인이다. 그녀는 노름 밀친으로 쓰일 돈 이원을 찾는 남편의 매질에 못 이겨 이주사의 첩노릇을 하는 쇠돌 엄마를 찾아가게 된다. 소나기가 억수로 쏟아져 내리는 그 날, 그녀는 이주사에게 몸을 맡기게 된다.

그리구 자기 딸이나 책이 아주 대범하게 꾸짖었다.
“왜 그리 계집이 달망대니? 좀 듚직치가 못하구.....”

춘호처가 그 집을 나선 것은 들어간지 약 한시간만이었다. 비는 쪽 쪽 나린다. 그는 진땀을 잇는대로 흠

뻑 쫓고나왔다. 그러나 의외로 아니 천행으로 오늘일은 성공이었다. 그는 몸을 소치며 생각하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당하는 봉변으로 지랄중에도 몹쓸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으려면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짓거야 골백번 당한대도 남편에게 매나안맞고 의조께 살수만 잇다면 그는 사양치안을 것이다. 리주사를 하늘카터 여겼다. 남편에게 부처 먹을 농토를 줄 테니 자기의 첩이되라는 그 말도 죄송하였으나 더욱이 돈이원을 줄께니 내일이밤 때 쇠돌네집으로 년컷이 만나자는 그말은 무엇보다도 고마웠고 벽찬 짐이나 풀은 듯 마음이 홀가분하였다. 다만 얘기는[깁기는] 것은 자기의 행실이 만약 남편에게 발각되는 나절에는 대매에 맞아죽을 것이다. 그는 일변 기뻐하며 애를 태우며 자기 집을 향하여 세자게 쏟아지는 빗속을 가분가분 내려 달렸다.

<소낙비>

춘호 아내는 몸을 팔게 된 것을 지랄이나 봉변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몸을 팔아서라도 남편의 노름 밀친을 마련해 주고, 함께 서울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하여 지랄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이 성공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사를 하늘과 같은 은인으로 생각하는 순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들은 궁핍한 생활 속에서 불평이나 불만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해소하고 때론 술장사나 매춘을 강요하고 아내를 물건처럼 팔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의 아내는 무지하리만큼 주어진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불평한마디 없이 순종하며 헌신적으로 복종한다.

이 유형의 아내들은 매춘을 많이 한다. 당시 여성의 매춘행위를 조장하는 제도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일제의 경제적 수탈구조와 또 하나는 가부장제라는 봉건적 유제다. 이들 제도적 요인은 경제적 수탈→궁핍화→가부장제의 압력과 방조 등의 질서를 통해 매춘이 이루어지는 회로를 형성하는데 작용했다. 따라서 매춘은 어느 한 측면만의 부추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대 상황의 복합적 조건들의 관계 속에서 행해진 것이다.

아내의 매춘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계유지의 방편이 되고 가정을 지탱하는 것은 역설적인 사실이다 아닐 수 없다.

<가을>의 복만과 그의 처는 <술>의 남편처럼 들병이에게 었혀 살 생각이라도 하지 않고, ‘먹을 게 없어도 변

통할 생각은커녕 방구석에 부처님 같이 우두커니 앉아 있기만 할' 정도로 무기력하다. 그가 생각해낸 마지막 수단이 자기 처를 돈 오십 원에 소장수에게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에게 아내의 마지막 재산적 가치를 지닌 상품이였다. 아내를 팔 때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야말로 인간이 상품이 되는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매매계약서
 일금 오십원야라
 우금은 내 안해의
 대금으로써 정히
 영수합니다.
 갑술년 시월 이십일
 조 복 만
 활거풍 전

<가을>

그러나 아내를 팔아넘기는 이 극단적 상황은 1930년대 우리나라의 당대 현실이었다.

처자를 매매하던 풍습은 빈민들 간에서 1930년대까지도 성행했다. 초기의 방식은 전당포에서 저당을 하는데, 미추, 성을 제공하는 여부에 따라서 대금 액에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저당된 인신은 홀아비나 일인의 계약에 따라 잠자리까지 제공해야 한다. 대금이 변제되면 돌려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더러는 몸값을 더 물고 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가을>의 서술자 나의 심리 상태에서 여성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로 미천이 들 터인데 돈은 없고 복만이라도 내다팔 아내도 없다. 우리집에는 여편네라군 병들은 어머니 밖에 없으나 나라도 늙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 맘대로 못하고 이런 생각에 잠겨서 짜장나는 복만이다더러 네 아내를 팔지마라 어찌라 할 여지가 없었다. 나두 일즉이 장가나 들어 두었으면 이런 때 팔아먹을걸 하고 부지러운 후회뿐으로

<가을>

여기서 당시 남성들이 여성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정상적인 사회 속에서의 비윤리가 가난한 농민들로 이뤄진 남성의 세계에서 아무런

무리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요자인 남성에 의해 아무런 통제도 없는 성관계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저항감 없이 자행되어지고 있다. 이는 '나'가 복만 이를 부러워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 소유라 팔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상황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당시 남성의 의식구조도 문제이지만 이는 남 성혼자의 결정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술상 아내를 매매함에 있어 아내의 동조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춘호는 이농과 빚으로 무력화된 남성이다. 무력한 그는 유일하게 아내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거세된 부원의 잔재가 여자를 억압하는 생활이다. 춘호부부의 유일한 미래는 아내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춘호처는 돈 이원을 구하기 위해 동네 이주사에게 몸을 팔게 된다.

춘호처가 그 집을 나선 것은 들어간지 약 한시간만이었다. 비는 여전히 쭉 쭉 나린다. 그는 진땀을 잇는 대로 흠뻑 쏟고 나왔다. 그러나 의외로 아니 천행으로 오늘 일은 성공이었다. 그는 몸을 소치며 생긱하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 중에 몹쓸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복을 받으려면 반듯이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짓거야 골백번 당한대도 남편에게 매나 안맞고 의종계 살 수부처 먹을 농토를 줄테니 자기의 첩이되라는 그 말도 죄송 하였스나 더욱이 돈 이원을 줄게니 내일 이맘때 쇠들네 집으로 년지시 만나자는 그 말은 무엇보다도 고마워서 벽찬 짐이나 풀은 듯 마음이 홀가분하였다. 다만 애키는[캥기는] 것은 자기의 행실이 만약 남편에게 발각되는 나절에는 대매에 맞아죽을 것이다. 그는 일변 기뻐하며 애를 태우며 자기 집을 향하여 세자게 쏟아지는 빗속을 가분가분 내려 달렸다.

<소낙비> p.75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 중에도 몹쓸 지랄'이라는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의 행실이 만약에 발각되면 매에 맞아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남편에 대한 윤리의식은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사를 하늘같이 은인같이 여기는 것에서 춘호 아내의 도덕적인 수치심보다 남편과 의종계 사는 생활을 우선으로 여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여성의 육체는 일제 통치하의 생존 유지 수단으로 이용된다. 여성의 성이 가

부장제의 힘의 구조와 식민지적 상황에서 상품화되기 때문이다. <소낙비>의 마지막 장면은 이주사에게 돈 이 원을 받기 위해 아내를 한껏 몸단장 시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여성의 몸이 윤리의식이 거세된 채 경제적 수치로 전락해 버리는 상황인 것이다.

깊은 산속으로, 우중충한 돌 틈바퀴로 잔약한 몸으로 맨발에 짚신을 끌며 강과른 산등을 타고 돌려면 찢먹던 힘까지 녹아내리는 듯 진땀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쭉 흘러내린다.

아랫도리를 단 외겹으로 두른 낡은 치맛자락은 다리, 허리로 척척 엉기어 걸음을 방해하였다. 땀에 불은 종아리는 거칠은 숲에 굽혀머어[굽혀서 다쳐]그 쓰라림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무거운 흠내는 숨이 탁탁 막히도록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삶에 발버둥치는 순직한 그의 머리는 아무 불평도 일지 않았다.

가물에 콩나기로 어찌다 도라지 순이라도 어지러운 숲 속에 하나 둘 뾰족이 뻗어 오른 것을 보면 그는 그래도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소낙비> p.66

아무불평이 없이 현실에 순응하며 현실에 적응하는 인물을 설정하여 현실 그 자체에 무너져 버리는 성격을 창조하고 있다. 가난하지만 현실에서 뛰쳐나가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버리는 성격 창조는 김유정의 나약한 의식과도 연관이 된다. 많은 생각은 있지만 현실과 싸워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져버리는 자의식의 구현으로 보인다.

이처럼 순응형의 인물들은 가난하지만 남편을 섬기는 착하고 순박한 여인들이다. 또한 이 유형은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여 여성들이 생활을 꾸려가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남편이 매춘을 묵인하고 강요하기도 하나, 남편을 배반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지 않는 여인들이다. 따라서 ‘순응형’은 가정을 위해서 한 걸 같이 자신을 희생하는 고통의 미덕을 지닌 한국적 전통적인 아내의 유형이라 할 수 있겠다.

<슬픈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내 역시 남편의 욕설과 폭력에 묵묵히 순종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여인상이다.

이 작품 속 남편은 이중적인 인물이다. ‘여러사람이 있는 앞에서는’가장 급실이 두터운 듯이’ 낮 간지럽게 굴지만, 다들 자고 나면 ‘무슨 대천지 원수나 품은 듯이’ 아내를 ‘잡아먹는’인물이다. 더구나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이유는 전차 운전수에서 감독으로 지위 상승하였기에 여학생 장가를 들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그런 그는 아내를 친절으로 내쫓기 위한 방법으로 매일같이 구타와 욕설을 서슴치 않는다. 아내는 남편보다 신체적으로 체격도 크고, 힘이 센 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때리는 남편의 매를 소리없이 맞아준다.

안해로 논지면 울러 들었다면 별서도 꽤 많이 울어 두었겠지만 아마 시골서 조출이 자란 계집인 듯 싶어 여필종부의 매운절개를 변치않을라고 애초부터 남편 노는테로만 맡겨두고 다만 가끔가다 조금씩 킁, 킁 할 뿐이었으나 한편에 울러이늘래앉았는 어린아들은 큰 아버지가 어머니를 잡는줄 알고 때릴때마다 소리를 막막 질러 우는 것이다.

...(중략)...

다들자고 만귀잠잠한 꼭 요맘때 야근에 돌아와서는 무슨 대천지원수나 품은 듯이 울지못하도록 미리 위협해 놓고는 은근히 치고, 차고, 이러는 이놈이다. 허기야 제 안해 제가 잡아먹는데 그야 내 뭇겜게 아니겠지.

<슬픈이야기> p.295

아내는 이렇게 부당한 남편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 별 이유 없이 남편의 신경질적인 폭력을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이 여필종부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그러한 폭력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엄동에 목도리 잡갑, 하나없이 그리고 겹저고리로 떨면서 아츰 저녁 격급내기로 빈도를 부치려 다니는 그 안해의 피땀이 안들고야 그 칠팔백원돈이 어디서 떨어지는가.

<슬픈이야기> p.297

이처럼 아내는 집안에서 안팎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생활력이 상했으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공헌한 현숙한 아내였다. 그러나 이 작품 속 아내는 유정의 여타 작품 속 아내들과는 다른 위치에 놓여있다. 그녀는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 속에서 밖으로 내 처진 처지가 아니라 남편에 의한 경제적 기반에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권주가 좀 해. 이견 끼어온 보릿자룻가.”

“권주가? 뭐야유?”

“권주가? 뭐야유?”

“권주가? 아 갈보가 권주가도 모르나. 으하하하.” 하고는 무안에 취하여 폭 숙인 계집 뺨에다 꺼칠꺼칠한 턱을 문질러본다. 소리를 암만 시켜도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만 기울일 뿐 소리는 못하나보다. 그러나 노래 못하는 꽃도 좋다. 계집은 영 내리는 대로 이 무릎 저 무릎으로 옮겨앉으며 턱밑에다 술잔을 받쳐 올린다.

<산골나그네>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남자들 사이에 노리게 감으로 전락했지만 그러한 현실에서 아무런 불평도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여인의 설정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문을 닫고 숨는 유정의 의식이 반영된 인물창조로 보인다.

3. 결론

1930년대는 일제의 식민지 탄압이 심해지던 시대로 사회전반에 혼돈과 모순이 극에 달했다. 이런 모순 속에서 농촌의 농민들과 도시의 노동자들은 빈민층으로 전락하였고 극도의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빈민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에도 불구하고 궁핍은 점점 더 가중되어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먼저 그의 작품엔 어리숙하고 순박한 빈민층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물이 그의 작품에선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반면에 인물의 직업·계층별의 유형의 종류는 제한적이다. 또한 교육을 받지 못한 무지한 인간이며 비윤리적 행위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르는 단순하고 부정적인 인간으로 묘사되어져 있다. 하층민이든 중산층이든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방법에만 골몰하거나 그것을 즐기는 단편적인 삶의 행동이 제시되어 있다. 농촌이든 도시든 지주, 마름, 양반, 지식인과 같은 지배층·중산층과 같은 신분별, 계층별에 따른 특성이자. 이들은 대부분 선천적인 상층의 계급을 타고났으며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논·밭을 거느리고 소작인과 머슴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작품에서 그들은 그렇게 축적한 재산으로 밤낮 술과 여자에 빠진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물들은 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적으로는 가족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

다. 여성 인물들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고, 공장, 버스회사, 연초 회사를 다니는 등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생활력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제의 침략으로 공업화된 사회상을 반영해주고 있다. 그의 작품에선 매춘이 쾌락추구나 정조관념의 윤리적 부재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궁핍화의 최고조 단계에서 생존마저 위협받는 절박한 시대상에 대한 고발 문학적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생존권은 도덕과 윤리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서사구조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매춘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고 본능적 생명애가 앞섰던 것이다. 그리고 매춘이 남편의 목인 하에 강요당하고 오히려 매춘을 통해서 가족의 생활비를 벌어서 부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매춘이 가족을 결속력 있게 유지시켜준 매개적 역할을 한다. 작가의 생애에서 만난 주변 여성들을 살펴 그것이 작가의 여성관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본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모성 콤플렉스와 가족 간의 애정 결핍, 박죽주와 박봉자로 인한 처절한 실연, 들병이와의 관계, 불우한 가족 형성 등등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그리 순탄한 관계는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 순응형’은 전통적인 여인상으로 소박하고 순박하며 인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상이다. 남편의 폭력과, 강요된 술장사와 매춘을 이 유형의 아내들은 남편의 뜻에 따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남편과 가족과 의종게 살 수만 있다면 자신 하나쯤은 아무렇지 않게 희생할 줄 아는 순종적이고 강인한 생활력의 여인상을 보여준다.

이상의 인물들은 거의 무지하고 체념적이며 불평 한마디 없이 남편을 섬기는 순박한 아내들이다. 경제능력을 상실한 채 허망한 꿈만을 꾸는 남편을 대신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 의해 술장사나 매춘이 강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들은 남편을 배반하지 않고 순종한다. 특히 이 유형의 여성인물들은 대부분 몸을 팔거나 물건과 돈으로 교환되어 지는 도구로 대상화 되어있다. 생활의 무게가 집중되어 당대의 모순과 부조리에 희생당하는 존재들이면서도 비극적으로 형상화되지 않고 대개 현실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궁핍한 현실에 대한 타개책은 매춘으로 대표되는 비도덕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이들에게 매춘은 일종의 ‘경제행위’였다. 당시의 현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먹고 사는 문제이다. 당장 먹고사는 것이 시

급한 과제인 사람들에게 윤리의식이란 하나의 사치에 불과할 뿐이다. 위의 유형들은 한결 같이 남편의 무능력·폭력 등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살아나감으로써 자신을 희생하고 강인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인물의 유형이라 하겠다. 남성인물 역시 궁핍한 현실에서 자신이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운명에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는 소극적 순응형 으로 설정되어있다.

참 고 문 헌

- [1] 구인환(1997). 한국 현대소설 연구, 민중서관.
- [2] 권영민(1993).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 [3] 문학사와 문학비평, 문학동네.
- [4] 김복순(2009). 바보이야기와 웃음, 한국학술정보.
- [5] 김사엽(1948).조선문학사, 정음사.
- [6] 김영기(1992). 김유정-그 문학과 생애, 지문사.
- [7] 김우중(1973). 한국현대소설사, 선명문화사.
- [8] 김윤식 김현(1973). 한국문학사, 민음사.
- [9] 김지원(1983). 해학과 풍자의 문학, 문장사.
- [10] 김태진(2007). 文學과 삶, 한국학술정보.
- [11] 박세현(1998). 김유정의 소설세계, 국학자료원.
- [12] 박세현(1990), 김유정 소설연구, 인문당.
- [13] 방인태(1986), 김유정김유정 소설의 작품유형, 배영사.
- [12] 캐롤린 헨들러 밀러(2006).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 [13] 김주환(2008).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생각의 나무
- [14] 류수열(2007). 스토리 텔링의 이해, 글누립
- [15] 한용환(1992), 소설학 사전, 고려원.
- [16] Georg Lukacs(1950), 소설의 이론, 심설당.
- [17] victor.Erich(1983),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과 지성사.

강 홍 규



- 1992년 3월 :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학사)
- 1997년 3월 : Academy of art university (MFA Motion picture & Video)
- 2007년 - 현재 : 숭실대학교 미디어아트 박사과정

- 2012년 - 현재 : 중부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 관심 분야 : 방송, 영상, 미디어
- E-mail : hong7@joongbu.ac.kr